



## 지하의 기억부터 스크린의 현재까지...

3월 새봄을 맞아 광주극장이 다큐멘터리와 고전, 신작을 아우르는 상영작을 선보인다. 광주극장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오다 카오리 감독의 '지하 3부작'을 상영한다. 오다 카오리는 2010년대부터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2013년에는 가장 감독 벨라 타르가 사라예보에 설립한 영화학교 '필름 팩토리'에서 수학했다. 장편 데뷔작 '아라가네' (2015)를 시작으로 '가마' (2023) 등 열 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3월 광주극장 상영작 소개

#### 오다 카오리 감독 '지하 3부작' 상영

#### '오, 발렌타인' '아르코' 등 개봉작 다채

이번 연작은 '지하'라는 공간을 통해 노동과 역사, 존재의 흔적을 응시한다.

'아라가네'는 보스니아의 100년 넘은 탄광을 찾아 지하 300m 아래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환경을 기록했다.

'세노테' (2019)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부

의 자연 우물 '세노테'를 카메라로 탐험하며 그곳에 깃든 역사와 기억을 따라간다.

'언더그라운드' (2025)는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민간인들이 몸을 숨겼던 지하 공간을 거닐며 남겨진 것들을 어루만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우리'의 형상을 그려낸다.

광주극장의 3월 개봉작도 이어진다.

4일 개봉하는 '차임'은 요리 교실 강사 마츠 오카가 종소리를 둘러싼 기이한 공포에 휩싸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음향 연출이 응집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스크린에 걸리는 '오, 발렌타인'은 2004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와 함께했던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투쟁과 혁명의 가능성을 감각하는 장편 다큐멘터리다.

미술·사진·포로그래밍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홍진훤 감독의 신작으로, 조성용·우창수의 인터뷰와 시, 노래를 통해 노동자가 사담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전한다.

같은 날 개봉하는 '파리, 텍사스'는 기억을 잃은 채 텍사스 사막을 헤매던 트레비스가 아

들과 함께 사라진 아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빔 벤더스 감독의 대표작으로, 1984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국제영화비평가 연맹상,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개봉 4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된다.

애니메이션 '아르코' 역시 11일 관객과 만난다. 미래에서 온 소년 '아르코'와 잭빛 지구에서 푸른 내일을 꿈꾸는 '아이리스'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후보에 올랐다.

이밖에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클로이 자오 감독의 '헵넛',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가 16일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까지 상영된다.

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연출한 '미스터김, 영화관에 가다', 이종필·윤가은·장건재 감독이 참여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 (18일 개봉)도 이들의 상영작에 포함돼 있다.

한편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세계 여성의 날” 인스타 댓글로 기념해요”

### 광주여성가족재단 시민 참여 이벤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8일까지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 (3월8일)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국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과 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재단은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 등 주요 현안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구성,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면 된다. 댓글을 남긴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 ACC '아시아 예술체험' 참여기관 모집

#### 요공예·회화 등 총 12회...선착순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역 내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ACC 아시아 예술체험' 교육 상반기 참여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2026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ACC의 핵심 주제인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지난 1월부터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기관·단체 교육이 본격 시작된다.

기관·단체 교육은 장애인, 시니어, 군장병,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6월 총 12회 운영되며, 아시아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강좌는 ▲동아시아 3국 전통회화 기법을 탐구하고 한국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동아시아 전통회화' ▲아시아 문자와 인장(印章) 문화를 배우고 인장을 만들어 보는 '아시아를 새기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담당자와 유선을 통한 일정 조율 후 ACC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이나 문화교육과(062-601-43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광주비엔날레, 2026년 첫 'GB토크' 연다

### 13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

#### 1980년대 이미지·노래의 확산 조명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는 2026년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번째 'GB토크'를 연다.

이번 'GB토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제시하는 주제를 미리 공유하고 확장해 보는 공

공 프로그램이다. 비엔날레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디로 향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주제는 '보급되는 이미지, 공유되는 노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목판화 등이 이미지와 노래,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하고 확산시켰는지 들여다본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은 편집과 복제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유통됐다. 저항가요는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반복적으로 복제·확산됐

고, 목판화는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제작·공유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비공식적 유통과 집단적 창작의 흐름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문화운동의 대중성을 뒷받침했다.

이번 토크에서는 예술이 억압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지역의 경험을 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대로 확장시킨 배경으로 기능했다는 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의 소개로

문을 연다. 이어 한재섭 광주독립영화관이 '광주/비디오, 소문과 이미지의 정치학' 상영과 토크를 진행한다.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사운드, 미디어, 음악하기'를 통해 1980년대 음악 문화와 매체 환경을 짚는다.

이후 최경화 큐레이터가 토론을 진행하며, 홍성담 작가와 박가희 큐레이터가 참여하는 대담 '광주시민미술학교'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가 질의응답과 마무리를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 사전 신청(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접수 현황에 따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행사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의 소개로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